

학습 1 샴푸 준비하기(LM1201010104_14v2.1)

학습 2 샴푸하기(LM1201010104_14v2.2)

학습 3 샴푸 마무리하기(LM1201010104_14v2.3)

1-1. 샴푸 준비

학습 목표

- 고객 편의를 위해 가운을 착용해 주고 샴푸대와 수온을 조절할 수 있다.
- 영킨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를 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① 샴푸 준비

샴푸는 고객이 요구하는 헤어스타일을 시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고객이 미용업소의 기술을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의 기술이다. 따라서 샴푸에 사용되는 샴푸대, 샴푸제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샴푸 시술자의 자세

샴푸는 고객이 최초로 미용업소의 종업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며 경험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몸가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샴푸 시술 시 나누는 직원과의 대화로 미용업소의 분위기는 물론 교육수준까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시술자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1) 복장

구겨지거나 지저분하여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지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요란스러운 복장도 고객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헤어스타일

단정하고 깨끗한 스타일로 불량스럽지 않아야 하며, 긴 앞머리는 샴푸 할 때 매우 방해가 되므로 짧게 자르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3) 냄새

담배 냄새, 김치·마늘냄새, 땀 냄새 등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지나친 향수냄새도 고객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샴푸 시 거품을 빨리 행구어 낼 수 있으므로 샴푸 전에 수압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② 사전 브러싱

1. 사전 브러싱의 목적

샴푸 전에 실시하는 사전 브러싱을 통해 엉킨 모발과 스타일링제를 사용한 모발에 노폐물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문제성 두피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분비물 먼지 등을 제거하며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분비선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1) 브러싱의 자세

샴푸 전 브러싱은 샴푸대에 고객을 앉게 한 후 뒤로 젖히기 전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발이 길거나, 모발에 핀류 등 액세서리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용의자에서 진행할 수 도 있다. 두 경우 모두 고객의 뒤편에 서서 시술자의 양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고객에게 안정감 있는 브러싱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의 두상이 시술자의 팔과 평행이 되도록 무릎으로 조정하며 허리를 좌우 움직여 두상 전체에 브러싱을 한다.

(2) 브러시의 종류

두피에 적당한 자극을 주며 엉킨 모발을 정돈하며 두피와 모발의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브러시는 패들 브러시, 밴트 브러시, 쿠션 브러시 등 종류가 다양하다.

(가) 패들 브러시(Paddle brush)

길고 두꺼운 모발을 곧게 펴거나 머리를 정리 할 때 사용하는 브러시로 끝이 둥글게 되어 있어 두피를 자극하는데 사용할 수 도 있다. 두피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적당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탈모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밴트 브러시(Vent brush)

빗살의 뒷부분에 구멍이 있어 샴푸 후 모발을 건조시킬 때에도 용이하게 쓰이는 브러시로 샴푸 전에는 짧은 모발, 가볍게 엉킨 모발을 정돈할 때 사용한다.

(다) 쿠션브러시(Cushion brush)

고무 재질 부분에 빗살이 붙어있는 형태로 공기가 들어있어 빗살을 안으로 누르면 들어가는 브러시로 정전기를 방지하고 엉킨 모발을 정돈하는 브러시다.



출처: 0브랜드 카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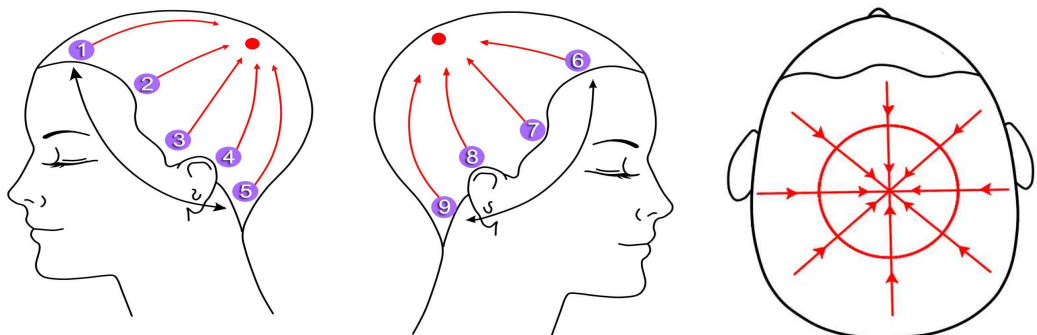
[그림 1-4] 패들 브러시, 밴트 브러시, 우드쿠션 브러시

2. 사전브러시 기법

긴 모발과 짧은 모발, 그리고 두피 및 모발에 오염물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에 사용하는 브러싱 기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브러싱 기법을 익히기 전에 브러시 사용법을 먼저 익혀 놓는 것이 중요하다. 브러싱은 사용하는 브러시의 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브러시 살의 가장 가장자리부터 두피에 닿도록 하여 중앙으로 팔목을 돌리며 회전하여 반대편 측면에 닿으며 두피에서 브러시가 아웃되도록 한다(김미현, 2012). 올바른 브러시 사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법의 브러싱을 하여 고객의 두피 및 모발을 보호하도록 한다.

(1) 원웨이 브러싱(Oneway brushing)

가장 일반적인 브러싱 기법으로 짧은 길이의 모발에서 중간 길이의 모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발에 적용할 수 있다. 한 손으로 브러시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브러시가 닿고 있는 두피와 모발을 따라감으로써 자칫 오염된 모발이 고객의 얼굴에 닿는 것을 방지하고 두피에서 떨어지는 각질 등이 날려 고객의 얼굴에 묻는 것을 방지한다. 발제선으로부터 센터에서 햄라인 전체를 둥글게 돌며(류은주·오강수, 2012) 골덴 포인트 방향으로 브러싱을 한다.



[그림 1-5] 원웨이 브러싱 1단계

[그림 1-6] 원웨이 브러싱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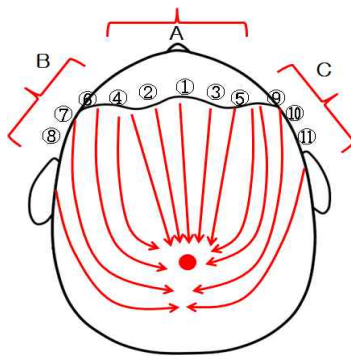
[그림 1-7] G·P로 향하는 원웨이브러싱방향

(2) 투웨이 브러싱(Twoway bru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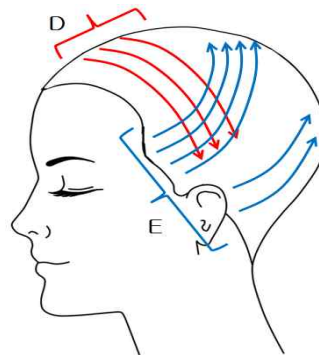
방향은 원웨이 브러싱과 같으나 양손에 브러시를 쥐고 번갈아 가며 브러싱을 한다. 순서는 프론트 부분에서 양쪽의 사이드로 진행을 하며, 브러싱을 하고자 하는 쪽의 반대편으로 허리를 틀어 브러싱을 한다.

(3) 롱헤어 브러싱(Longhair brushing)

롱헤어는 샴푸하기 전에 반드시 브러싱으로 모발을 정돈하여, 샴푸 시 물이 두피까지 빠르고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두상 구석구석 브러시가 닿을 수 있도록 브러싱을 한다.



[그림 1-8] G·P로 향한 롱헤어 브러싱



[그림 1-9] 사이드와 백부분의 롱헤어 브러싱

샴푸 전 브러싱은 꼭 필요한가?

샴푸전에 브러싱은 꼭 필요하다. 엉켜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물에 닿게 되면 손상이 쉽게 되므로 샴푸전 가벼운 브러싱으로 엉킨 모발도 가지런히 하고 두피와 모발의 이물질도 가볍게 떨어뜨릴 수 있는 브러싱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긴머리의 경우와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한 모발의 경우 더욱 필요한 과정이 브러싱이다.